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

이 유 경
(재단법인농정조사위원회 전문조사원)

1. 들어가며

일본의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은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화의 진행과 장기적 경기침체와 엔고의 영향으로 생산거점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시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농가 수의 71%가 겸업농가이지만 점차적으로 겸업취업처가 소실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농가의 소득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 이후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국내식품시장 규모의 축소→농업생산액 감소→농업소득 저하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12월에 재집권한 아베정권(자민당)은 2013년 2월 「공격형 농림수산업」의 3대 전략으로 ① 새로운 수요 확대, ②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결된 밸류체인 구축, ③ 생산현장 강화 등을 내세우며, 2013년도 농림수산업 예산을 2조 2,976억 엔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업의 예산증액은 13년 만의 일이다.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재확립을 농업부분의 활성화를 기축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 후 각의에서 결정된 「일본 재부흥 전략(JAPAN is BACK)」에서도 수출확대를 통

* (ykleee@affrc.go.jp 03-6737-9089).

한 수요확대와 함께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벨류체인 구축을 위한 6차산업화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6차산업의 시장규모를 2010년도의 약 1조 엔에서 2020년에는 10조 엔 규모로 확대시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정 주요 전략의 하나로 농업·농촌 6차산업화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농업은 전체 농가 중 전업농가 54.3%, 제1종 겸업농가 14.7%로, 약 70% 이상의 농가가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미 47개국과의 FTA체결과 TPP 참여 표명 등 한국의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수입 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산물 시장 및 농가소득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농업소득 하락에 대비해 농업이외의 사업을 통한 소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 6차산업화 추진이 새로운 해결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6차산업화”라는 신조어의 탄생지이자 6차산업화 정책면에서 선행하고 있는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일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과 추진사업

2.1. 일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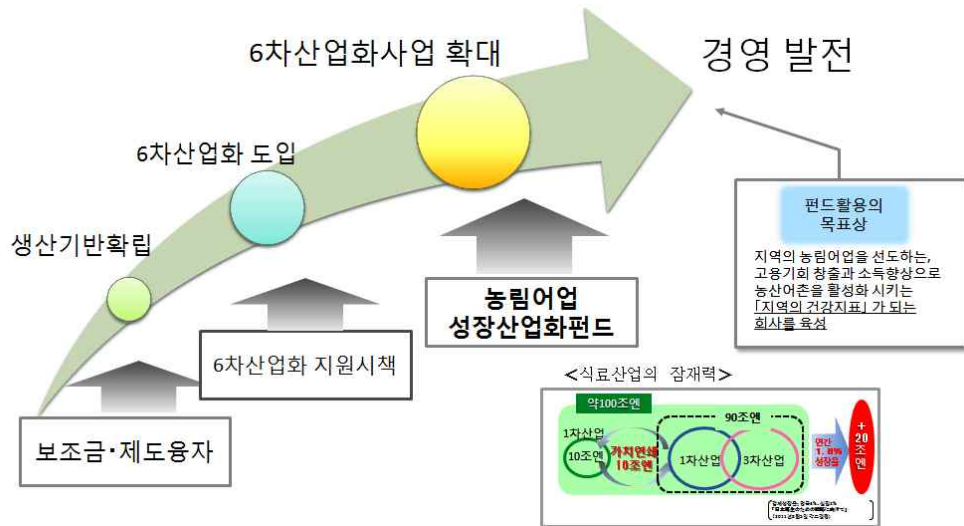
농업·농촌 6차산업화는 2009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농림수산분야의 성장산업화의 주축으로 농업·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2월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의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6차산업화법)이 공포되었다. 현행 6차산업화는 기존의 지산지소와 농상공연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관련 시책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①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사업으로의 진출 등 6차산업화에 관련된 시책, ②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산지소법 등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경영의 다각화 뿐만 아니라, 농상공연계와 직매소 지원,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지산지소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농업영역 뿐만 아닌, 자연, 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일본 농정에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의 개념은 농업종사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를 원료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과,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관계를 이루어 지역의 문화, 고유 가치를 살린 부가가치화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목적은 농업·농촌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내에 수요를 창출하고, 가능한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농정에서는 농업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경영 발전단계를 생산기반 확립단계, 6차산업화 도입단계, 사업 확대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초기단계에는 정책 보조금과 융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이후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과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농업경영의 6차산업화를 도입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 지원을 통해 사업을 보다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영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림 1 일본 농정의 6차산업화 지원 방향 모식도



자료: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農林漁業の成長産業化に向けて」, 2013년5월.

2.2. 6차산업과 추진 정책사업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이 가장 기본이 되며,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조금의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2.1. 6차산업과 네트워크 활동 교부금

중앙 정부로부터 도도부현에 교부금(정책교부)을 교부하여 6차산업화 플래너¹⁾ 등을 배치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6차산업화 서포트 센터²⁾」의 활동·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프로젝트 조사 및 검토, 프로젝트 리더 육성, 공동신상품개발·판로개척 등에 지원하고 있다(사업비의 1/2보조, 단 인정사업자는 2/3).

또한,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그 중, 농림어업자단체 및 농림어업자단체등과 연계하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자³⁾를 대상으로 6차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가공시설, 기계 등에 대한 반액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2.2. 6차산업과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6차산업화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현(縣)단위를 넘어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연계를 이룬 광역적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상품개발, 판로확대를 위한 회의개최, 프로젝트 조정·검토, 프로젝트리더 육성, 신상품개발·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보조율 1/2, 단, 인정사업자는 2/3). 또한, 농림수산물의 가공, 판매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보조율 1/2).

2.2.3. 6차산업과 서포트사업

2013년 9월에 전국을 총괄하는 차원의 「6차산업화 중앙서포트센터」가 설치되었으

- 1)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실행과정에서 경영진단 및 신상품개발, 판로 등에 관련된 조언자 역할을 담당한다.
- 2)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간지원조직으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 3) 보조사업의 대상자 채택기준으로, 투자효율 1.0 이상, 사업실시주체의 경영상태가 최근3년 간 연속으로 경영손실 및 채무초과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독사업일 경우, 농림어업자단체는 취급하는 농림수산물 등 원료를 참여사업자가 약50%이상 생산, 혹은 생산할 계획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자는 신상품의 원재료인 농림수산물 등의 50%이상을 목표연도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림어업자단체등으로부터 조달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형태의 사업의 경우에는, 현(縣)단위를 넘어 다양한 사업자가 연계한 혹은 연계할 계획이어야 하며, 네트워크 참가자가 생산하는 농림수산물을 포함하여 단독사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며, 농림어업자 및 도도부현 지원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6차 산업화 플래너의 선정 및 파견, 인재육성 연수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펀드 활용의 제안이나 광역 범위의 사업자 간 연계 업무, 상담회, 정보교환 모임, 우수사례의 수집 및 분석, 사례발표회, 실천모델 작성과 이를 활용한 계발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2.4.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지원

2013년 2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318억 엔의 펀드가 조성되어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가 설립되었다. 기구의 펀드는 지역 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서브펀드⁴⁾에 출자하는 형태로 실제 대상사업체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펀드지원은 농림수산업분야에 타산업 분야 및 민간지원의 노하우를 이전, 축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체의 사업범위는 농업생산부문을 제외한 가공, 유통 등 2차, 3차 산업부문에 한정된다. 또한 출자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사업발전 단계에 맞춘 경영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2.2.5. 농산어촌지역 비즈니스 향슬 인재육성 위탁사업

2014년도 예산요구안에는 농산어촌 지역적 차원의 6차산업화의 추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환경,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매스, 기술혁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정통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접 새로운 비즈니스의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농산어촌 비즈니스 매니저」(가칭)를 육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작성, 연수회와 e러닝, 현장 연수 실시를 위한 위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 현(縣)의 자체사업으로 6차산업화에 관련된 사업(H/W, S/W)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7월에 성립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농상공연계촉진법)」 제정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농상공연계 사업계획 및 농상공연계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가 연계한 신상품 개발, 판매촉진 및 양자의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4) 서브펀드는 지역금융기관 등이 6차산업화 사업체에 출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A-FIVE가 서브펀드의 50%를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간자금을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업연계네트워크 사업으로 농업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및 업종의 주체가 모여 상호 정보 교류, 공유, 연계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산업연계 네트워크, 2011년 12월 설립)을 창설하여, 각종 테마의 교류회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1월 1,124개의 단체, 기업,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도 농림수산업성 예산요구에서는 6차산업화를 통한 농림수산물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의식농(醫食農) 연계 추진 환경정비사업, 개호(介護)식품보급 추진사업, 학교급식 지산지소 추진사업, 농업과 이업종 간의 연계로 신사업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촉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6차산업화의 촉진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자 및 관련 업종의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함께, 시설 및 기계 등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체계가 각 도도부현 단위의 지역거점과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거점을 마련하여 사업규모와 범위에 맞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6차산업화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사업인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과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과 인정상황

3.1.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이란 농림어업자들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바이오매스 등)의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일체적으로 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농림수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인정 요건으로 먼저 사업주체는 개인, 법인, 농림어업자 조직·단체(농협, 집락영농 등), 농림어업자 등으로 한정한다. 단, 사업주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자(2차, 3차산업의 기업 등도 포함)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원료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하거나, 기존 판매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농림어업자들의 가공, 판매사업 진출을 촉진시키는 연구개발 및 성과를 이용하는 활동(6차산업화법 규정 연구개발, 성과이용사업계획의 인정 등에 관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계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의 지표로 ① 대상상품(농림수산물 등 및 신상품)의 매출액이 5년간 5%이상 증가, ② 사업종료 시 사업주체의 소득이 개시시점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 및 정책자금의 융자·보조 혜택의 대상이 된다. 단, 인정사업자 전체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을 갖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정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페널티 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조치】

1. 농림어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융자자금의 대상자확대(촉진사업자 포함), 및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의 연장(상환기간: 10년→12년, 거치기간: 3년→5년, 농업개량자금 융통법 등)
2. 산지 릴레이식 야채 계약거래의 교부금 대상 산지 확대(야채생산출하안정법)
3. 직매시설 등의 건축 시 농지전용 등의 절차 간소화(농지법, 낙육진흥법)
4. 시가지조정구역내 시설정비(개발행위)시 심사 절차의 간소화(도시계획법)
5. 식품가공 판매에 관한 자금을 채무보증 대상에 추가(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융자】

1.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융자자금(농업개량자금)의 융자(상한액: 개인 5천만 엔, 법인·단체: 1억5천만 엔)
2. 단기운전자금(슈퍼S자금)의 융자(상한액: 개인 1천만 엔, 법인 4천만 엔, 금리 1.5%(2013년 8월 19일 현재))
3.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로부터 출자(상한액: 신설 공동기업체 자본금의 1/2)

【보조】

1.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의 상향조정(통상 1/2 → 인정자 2/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조에 관련된 기기의 렌탈 및 리스 비용, 시장평가에 수반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 출전, 팜플렛 작성비 등을 지원
2. 새로운 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보조율 1/2) 실시 주체는 6차 산업화·지산지소법 또는 농상공등연계촉진법의 인정을 받은 민간단체 등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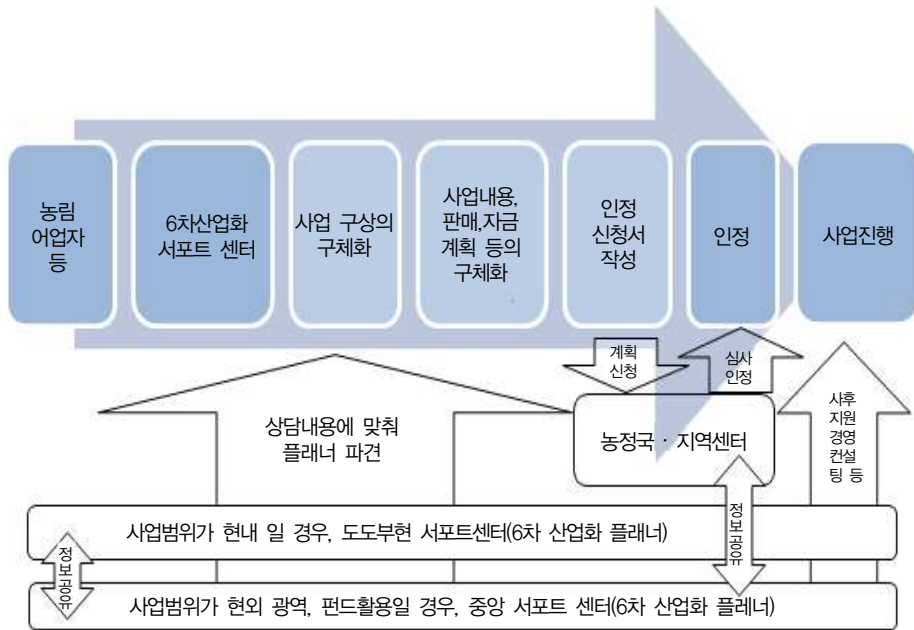
【기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본성 및 지방농정국 등)에서 인정사업자명을 게재, 공표, 광고지, 메일 매거진 등 광고매체에 게재,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연수회 개최, 정보제공 등

3.2.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지원체계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은, 농림어업자의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신청, 인정, 사업실시단계까지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정책사업의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위탁사업으로서 민간조직을 원칙으로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를 공모·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현(縣)별로 현 농업진흥공사, 중소기업진단사회, 농업단체, 상공회단체, 상공업 관련의 민간 컨설팅회사 등 사업주체 기관이 다양하게 설립되었다.

그림 2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의 지원체계



자료: 본인 작성.

그러나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사업의 지속성 여부, 현사업과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현의 관련사업과 연계된 추진의 곤란, 민간 주체가 오히려 지역 사정에 밝은 현이나 시정촌 등과 연계관계가 미비한 점, 농업생산자와 거리가 있는 점, 관련 주체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3년 11월부터 중앙정부가 6차산업화 관련 네트워크 교부금을 각 현(縣)에 배부하고 이를 현에서 관리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서포트센터에는 플래너가 상주(일부 등록)하고 있으며 종합화사업계획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계획의 신청부터 인정후의 지원까지 담당하며 상담 내용에 따라 6차산업화 플래너를 파견한다. 기본적으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6차산업화 사업에 관련된 안건의 발굴, 신상품 개발, 경영관리, 판로확대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플래너를 통한 개별지원 이외에도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교류회 등의 개최를 통해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림어업분야의 가공, 유통, 외식, 관광분야 등 6차산업화와 관련된 사업의 선도적 실천자, 혹은 관련 실적 보유자, 관련주체 간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능력 보유자, 정보발신 능력 보유자 등을 불런터리 플래너⁵⁾(주로 우수사례 경영자)로 지정하여 연수회나 강연회 등에 초청하여 실무 관련 조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차산업화 플래너 612명, 불런터리 플래너 409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플래너의 직업별로는 컨설턴트가 전체의 72%(441명)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행정·공적지원기관의 소속이 4%(22명), 식품·도·소매업 종사자 3%(21명), 농림수산업 종사자 3%(19명)등의 순이며,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 식품제조업, 광고·디자인업, 금융업 등 종사자가 소수를 구성하고 있다.

3.3.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 연왕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은 연간 3회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8회 실시되어 현재 1,681건이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큐슈 298건, 킨키 286건, 칸토 260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정 건수가 많으며, 반면 오키나와와 홋카이도, 그리고 호쿠리쿠 지역은 100건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지역별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5) 불런터리 플래너(voluntary planner)는 선도적인 6차산업화 실천자들을 농림수산대신이 임명하고 있다.

표 1 2013년 11월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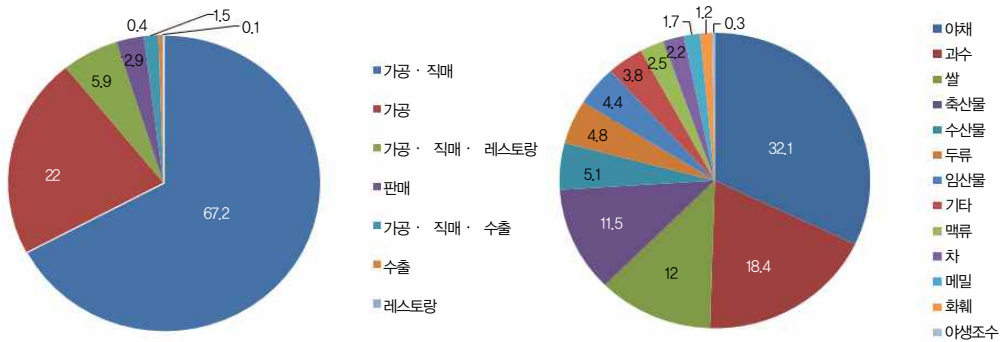
단위: 건

지역	인정 건수	그 중			연구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의인정건수
		농축산물관련	수산물관련	임산물관련	
홋카이도	99	91	3	5	1
토호쿠	260	242	9	9	4
칸토	273	245	16	12	13
호쿠리쿠	80	76	3	1	1
토카이	156	132	11	13	0
킨키	286	267	10	9	2
츄고쿠시코쿠	177	139	28	10	3
큐슈	298	252	27	19	3
오키나와	52	47	4	1	0
합계	1681	1491	111	79	27

자료: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6차산업화추진 전국설명회자료」, 2013.10월공표자료.

주요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관련이 1,491건으로 압도적이며, 수산물 관련 111건, 임산물 관련 79건, 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이 27건 등이다. 농림수축산물의 품목별로는 야채 32.1%, 과수 18.4%, 쌀 12%, 축산물 11.5%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내용별로는 「가공·직매」가 67.2%로 압도적이며, 「가공」 22%, 「가공·직매·레스토랑」 5.9%, 「가공·직매·수출」 1.5%로, 가공을 포함한 사업이 전체의 96.6%로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농림수축산물의 가공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체 사업내용 및 대상 농림수산물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6차산업화추진 전국설명회자료」, 2013.10월 공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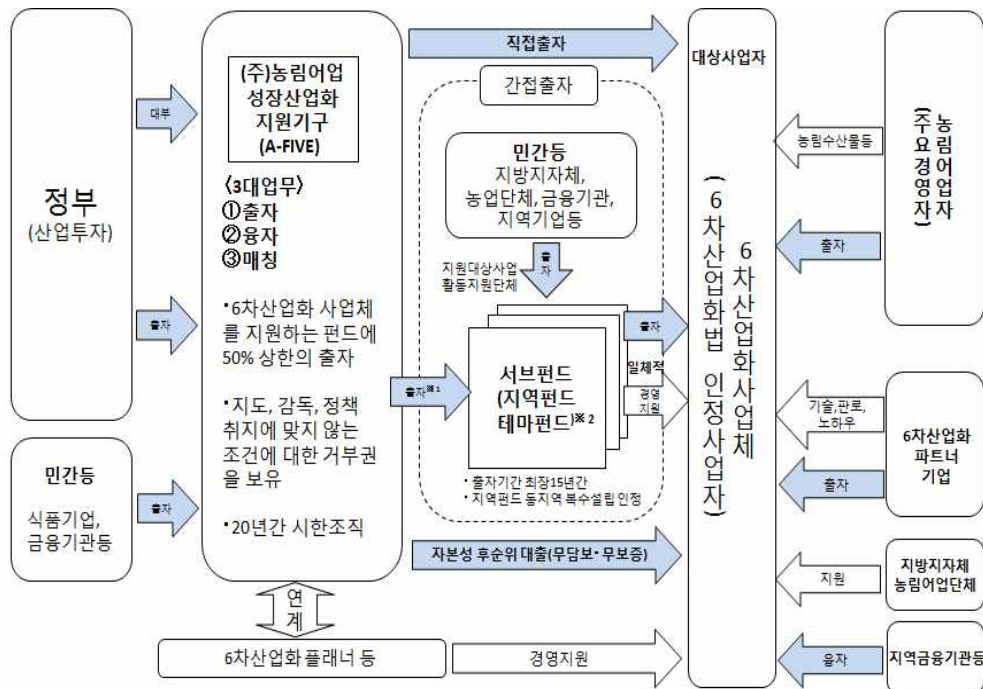
4. 농림어업성장산업와 펀드 성립과 진행

4.1. 농림어업성장산업와 펀드 성립

6차산업화의 사업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8월에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지원기구 법」(약칭, 펀드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에는 펀드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영문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und corporation for Innovation, Value-chain and Expansion Japan, A-FIVE)가 설립되었다. A-FIVE는 국민 공동출자형 펀드(정부: 300억 엔, 민간: 18억 엔 출자)로 6차산업화 사업체를 대상으로 출자, 융자 및 관련 주체간의 매칭사업 등 경영지원을 맡는다.

2013년 10월에는 A-FIVE지원으로 서브펀드는 전국에 33개(지역펀드: 26개, 현단위 무제한펀드: 5개, 테마펀드: 2개)가 설립되었으며, A-FIVE의 출자분 297.61억 엔(출자분

그림 4 펀드를 활용한 자금공급의 구조



※ 1. 펀드설립시에 기구가 출자약속 혹은 자본성 후순위대출을 실행 할때는 농림어업자의 의견취득등을 시행한다.
 ※ 2. 해당펀드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법)에 근거한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임(그 이외는 개별상당),

자료: 농림수산성식표산업국, 「6차산업화 추진 전국설명회 자료」, 2013년 10월 공표자료.

의 1/2)을 포함해 총 595.22억 엔 규모이다.

서브펀드도 A-FIVE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출자로 구성되며, 펀드 출자의 대상 사업체는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6차산업화 파트너)가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체(6차산업화 사업체)가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장 15년의 장기자금을 출자(상한액: 신설 사업체 자본금의 1/2)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본성 후순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금은 대상 사업체가 매입하여 자사주식화 하거나 기존 주주 혹은 제3자(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인정될 만한 주체)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단, 펀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 종합계획사업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의 사업 범위는 2차(가공 유통) 및 3차(서비스 등) 산업 부문이다. 따라서 생산부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의 농지소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펀드 출자를 통한 6차산업화 사업체의 육성은 농림어업자가 농림어업(1차 산업) 이외의 타 산업으로부터 기술, 노하우, 판로 등을 전수 받아 새로운 사업전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트너로 참여하는 2차, 3차 산업의 사업자도 농림어업자와 새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가공품 원료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산지 단계에서부터 상품과 메뉴 등 차별화된 상품구상이 가능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홍보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2. 농림어업성장산업와 펀드 지원 특징

지금까지의 보조금 및 융자 지원방식과 새롭게 도입된 출자형 지원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보조금 지원은 사업요건이 엄격하고 자금용도가 한정적이며, 융자지원의 경우에도 담보나 보증이 요구되는 동시에 자금용도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출자형 지원은 사업계획의 자유도가 높고 담보 및 보증이 필요 없으며, 자본금 형태이기 때문에 용도가 자유롭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금 조달측면에서 출자지원의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에 비해 자기 자본의 20배정도 규모의 사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는 비교적 자기 자본 규모가 작은 농림어업사업체의 사업 확대 시에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어 왔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펀드 출자 대상사업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본성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본성 후순위 대출은, 무담보, 무보증, 장기대출이라는 점과, 민간금융기관이 재

무상태 평가 시에 자본으로 평가되는 차입금으로, 향후의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표 4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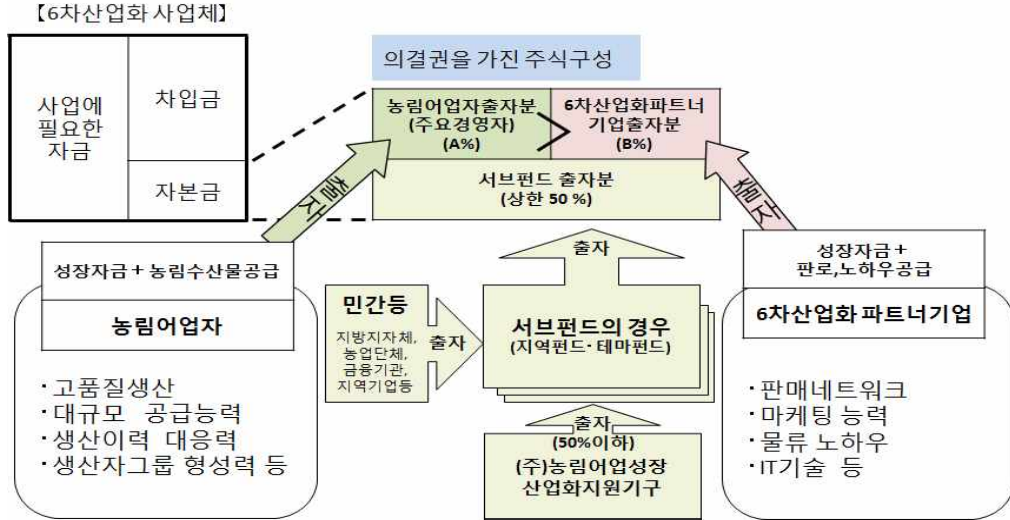
	보조금	융자	출자(펀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요건이 엄격함 · 담보, 보증이 필요없음 · 자금용도가 한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 보증이 필요함 · 자금용도가 한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자유도가 높음 · 담보, 보증이 필요없음 · 재무건정성을 강화시킴 															
자기자금과 사업융자의 관계	<table border="1"> <tr> <td>자금조달</td> <td>보조금 ①</td> </tr> <tr> <td></td> <td>자기자본 ①</td> </tr> </table>	자금조달	보조금 ①		자기자본 ①	<table border="1"> <tr> <td>자금조달</td> <td>융자 ④</td> </tr> <tr> <td></td> <td>자기자본 ⑤</td> </tr> </table>	자금조달	융자 ④		자기자본 ⑤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자금조달</td> <td>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융자 ⑬</td> </tr> <tr> <td>자본성 후순위대출</td> </tr> <tr> <td>펀드출자분 ②</td> </tr> <tr> <td>자기자본(파트너사업자) ①</td> </tr> <tr> <td></td> <td>자기자본(농림어업자) ①</td> </tr> </table>	자금조달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융자 ⑬	자본성 후순위대출	펀드출자분 ②	자기자본(파트너사업자) ①		자기자본(농림어업자) ①
	자금조달	보조금 ①																
	자기자본 ①																	
자금조달	융자 ④																	
	자기자본 ⑤																	
자금조달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융자 ⑬																	
	자본성 후순위대출																	
	펀드출자분 ②																	
	자기자본(파트너사업자) ①																	
	자기자본(농림어업자)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령 보조율1/2의 경우, 자기자금의 2배규모까지 사업규모를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신용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자기자금의 2배~5배 규모까지 고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와 펀드의 출자를 활용하여 자기자금의 20배정도 규모의 사업까지 고려 가능 															

자료: 농림수산생식표산업국, 「6차산업화 추진 전국설명회 자료」, 2013년 10월 공표자료.

펀드사업의 대상이 되는 6차산업화 사업체의 출자구성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자의 출자분과 6차산업화 파트너 기업의 출자분으로 전체 출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50%상한)를 서브펀드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다. 단, 농림어업자와 파트너 기업의 출자분에서 반드시 농림어업자의 출자분이 50% 이상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 활동에서 농림어업자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구성의 특징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보조금 및 융자, 자금우대 등과 같이 일과성을 가진 지원과는 달리, 사업경영의 성공여부가 농림어업자, 6차산업화 파트너기업, 서브펀드 등 참여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를 조성하여, 참여 주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며, 경영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15년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출자규모를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단계적 출자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출자금 형태의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운전 자금 및 인건비 등 여러 방면의 자금 수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출자를 통한 자금의 특징



자료: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 「6차산업화추진 전국설명회자료」, 2013.10월 공표자료.

게다가, 자금 조달측면에서 공동기업체에 대한 출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공, 판매시설 등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자의 생산이외의 가공·유통부분 등 일부 사업부분만을 분사화 시켜 공동기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3.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출자결정 사업체 연왕

2013년 11월 펀드 출자가 결정된 사업체는 모두 6개소로 파악된다. 그런데 서브펀드의 출자금 규모가 최대 1억 엔, 최소 4천만 엔 규모로 파트너 기업과 농림어업자등의 출자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2억 엔, 최소 8천만 엔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사업체가 설립된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야채생산자와 대기업 유통소매업자의 연계사업, 새로운 포장기술을 도입한 야채 유통·판매사업, 장어사육에 신기술을 도입한 생산, 가공, 판매사업,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식품의 제조 및 레스토랑 등의 운영사업, 전국체인 형성으로 고부가가치화 한 식재, 분재의 해외수출사업의 사례가 채택되었다.

채택된 사례를 바탕으로, 펀드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부문과 이업종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유통망 형성과 신기술 도입을 계기로 한 판매채널 확대, 해외수출사업의 촉

진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서브펀드 출자결정 6차산업화 사업체 현황(2013년 11월 현재)

6차산업화 사업체명	서브펀드 출자결정금액	사 업 내 용
o후레쉬 주식회사	1억 엔	재해지역의 야채생산자와 대기업 유통소매업자가 연계하여 야채의 가공판매 사업
주식회사 미라이트레이딩	2천만 엔	희귀품종의 양상추를 재배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기술로 유통판매 사업
니시니훈수산 주식회사	6천만 엔	미성숙 장어를 일정조건하에서 재 사육하여, 성숙장어로 출하, 가공, 판매
주식회사 OcciGabi Winery	8천백만 엔	지역산 와인용 포도를 사용하여 와인을 제조, 지역산 식재료를 사용한 레스토랑 운영, 자가제조한 와인과, 지역산 야채, 과일, 수산물, 가공품등의 판매점 운영 등 복합사업
재팬호트비지니스 주식회사	5천만 엔	치바현을 중심으로 전국각지에서 조달한 식재, 분재를 고부가가치화 시켜, 유럽, 아시아, 북남미등 시장에 수출
오카나와재배수산 주식회사	4천만 엔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보리새우의 연중판매를 실현, 대량 수요처 개척과 대규모 소비지로의 판매채널 확대사업

자료: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홈페이지.

5. 6차산업화 지원체계 사례

5.1. 토치기현의 6차산업화 관련 사업수진 개요

토치기현(栃木縣) 은 관동지역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북부 지역은 산악지대, 남부 지역은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1950년 이후 공업화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제조업 관련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현재 산업별 총생산액 비율이 3차 산업 60.5%, 2차 산업 37.8%, 1차 산업 1.7% 등으로 농업생산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하지만, 농산물 품목별로는 딸기, 콩나물, 보리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유, 부추, 일본 배도 전국 2위를 자랑하는 농업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도쿄와 인접하여 교통망이 발달되어 대규모 소비지에 가까운 입지 조건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존의 제조업 및 다른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을 연계시켜 다양한 6차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맞춰, 토치기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발전 전략의 중점 사업으로 「토치기 농업 성장 플랜」을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농업을 기점으로 한 푸드밸리 토치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푸드밸리 토치기 프로젝트 사업은 음식을 테마로 지역 경제를 성장 발전시켜 활기찬 토치기현의 실현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치기 현에 위치하고 있는 현(縣) 농정부, 농업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 농업회의, 각 시(市)(우츠노미야시(宇都宮市), 코야마시(小山市), 오오타바라시(太田原市)), 6차산업화 플래너 대표, 6차산업화 블란터리 플래너 대표, 관동농정국 지역센터(우츠노미야시, 오오타바라시), 식품기업 등을 구성원으로 한 「푸드밸리 토치기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식품기술연구회 추진사업」, 「푸드밸리 토치기 중점 공동연구비 지원사업」, 「농상공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 등 산관학 연계를 통한 상품개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농상공연계사업과 함께 농업관련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6차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은 「푸드밸리 토치기현」 프로젝트의 총사업비(5억 8백만 엔)

그림 6 2013년 「푸드밸리 토치기현」의 사업 내용

푸드밸리 토치기현 추진협의회 (네트워크형성지원(0.16), 정보발산사업(0.06), 인재육성·확보사업, 자금조달지원(61.4))		
농상공연계사업 추진		6차산업화사업 추진
산관학연계를 통한 상품개발,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도 시야에 포함)	농업을 비롯한 관련사업의 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술연구회추진사업 (0.24) 푸드밸리 토치기 중점 공동 연구비(0.2) 농상공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치기현 기업유치, 현산품판매 추진본부와 연계(1.48) 판로개척지원(4.04) -국내, 현내, 해외에서 개최하는 상담회 출전 토치기현 농산물 상품발연력 향상 사업 (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밸리 관계기술 촉진사업 (0.59) 가공·업무용수요 대책사업비 (2.42) 지역 6차산업화네트워크 추진 사업비(2.0) 6차산업화 도입지원사업(0.5) 아그리푸드 비즈니스 지원사업(3.0) 6차산업화교부금 시설정비 사업(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리는 상품만들기 지원사업(1.28) 푸드밸리 토치기 농상공 펀드사업(별도예산) 토치기 미래 챌린지 펀드사업(별도예산) [식 과 농] 기업지원 프로젝트 추진사업(0.1) 		기업입지지원(별도예산)

주: 괄호안의 수치는 토치기현의 푸드밸리 토치기의 총사업비 5억8백만66만2천엔 중의 비율을 나타냄.

주2: 별도예산이란 현 사업예산 중 「푸드밸리토치기」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료: 토치기현청 농정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의 31%를 차지하며, 그 중 상품 및 기술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이 8.5%, 시설, 기기 등에 대한 지원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식품기업의 요구에 맞춘 품종의 선정,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푸드밸리 관계기술 촉진사업」, 농상공관계자의 연계 및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 6차산업화 네트워크 추진사업」과, 6차산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가공시설, 기계 등에 대한 지원인 「6차산업화 교부금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현(縣)독자사업으로(총사업비 예산의 3.5%) 6차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농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습득, 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적성 검사, 농산물 직매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에 필요한 계획 작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6차산업화 도입 지원사업」, 농업법인 등의 6차산업화 사업 도입에 필요한 가공설비·기기 등에 대한 지원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인 「아그리푸드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1.1.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토치기현의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이하, 서포트센터)는 공익재단법인 토치기현 농업진흥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토치기현 농업진흥공사는 1971년 현(縣)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조직으로, 당시 목초지 조성 및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3년 11월 현재 전체 직원은 100여명이며 그 중 서포트센터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다.

토치기현에서 서포트센터를 농업진흥공사가 맡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 농상공제휴사업의 실시로 현의 산업진흥센터(경제산업성사업)로부터 위탁사업을 받게 되어 농업진흥공사 내에 농상공제휴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원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6차산업화 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본 사업에 공모·채택되었다.

현재 서포트센터에는 총괄기획 추진원과 기획 추진원 각 1명의 상주 직원과, 비상근직 플래너 2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 밖의 플래너는 정부(지방농정국)에 일괄 등록되어 서포트센터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래너는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3개현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토치기현에는 30명이 등록되어 있다.

서포트센터에서는 6차산업화의 계발을 위해 팜플렛, 포스터 등의 작성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2011년도 실적 기준)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그 중 300여명 정도가 6차산업화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담은 두 자릿수에 그쳤으며 2011년도부터 3년간 총 20건이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자에 채택되었다.

5.1.2.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플래너 연왕

현재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에는 6명의 플래너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각각의 플래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괄 플래너 A씨는 퇴직공무원(현청 퇴직)으로, 현역에서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농업경영지원과 지역농업 진흥계획에 관련된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2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플래너 특징

플래너	직업	직업경력	전문분야	지원내용
A	민간 컨설턴트	퇴직공무원 현청근무)	농업경영개선, 경영 관리업무 지역농업진흥계획 코디네이터업무	경영관리, 개선상담 지역진흥계획의 포인트 장래의농업농촌진흥방향
B	민간 컨설턴트	현청퇴직후, 현 행정서사	농림수산물 (가공품)의마케팅 신상품 개발지원 · 판매전략입안 지원	소재를활용한 신상품개발 판매촉진 비즈니스플랜의작성
C	민간 컨설턴트	식품산업생산라인 총괄자 (퇴직)	식품제조기술 및 생산관리 식품품질관리, 식품위생관리 식품개발연구 및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방법 식품소재이용방법 식품개발기획방법
D	유통소매 외식업 관련종사자	(주)파머스포레스트사장겸 미치노에키로맨틱마을지 장관리자(닛산자동차퇴직)	경영관리전반 점포시설경영 유통,마케팅전반	실천적상품제조 판매방법 지역활성화 체계구축 신규사업개발등
E	민간 컨설턴트	중소기업진단사 (슈퍼마켓관련종사)	상품개발,브랜드 형성,판매촉진 점포 시설개발, 점포운영	사업내용에 맞춘 연계구축 사업전망에맞춘 비즈니스 플랜 작성 점포(시설)의 운영방법
F	민간 컨설턴트	토치기현모테기정의 농림 과정(마을만들기전문가)	농업,농촌지역진흥(마을만들기) 경영개선,경영관리 등의코디네이터업무 식품의가공,개발 연구업무	지역자원의발굴 특산물개발 고부가가치화연구 도농교류사업추진 마을만들기운동의추진

자료: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제공자료.

B씨는 현청을 중도 퇴사하고 현재 행정서사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의 소재를 활용한 신상품개발과 비즈니스플랜 작성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C씨는 식품산업관련 생산라인 총괄업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ISO와 HACCP에 정통하다. 따라서 식품제조 및 가공방법, 식품개발, 기획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D씨는 전직 닛산자동차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직매장 운영(도로변 휴게소 「로맨

「택 마을」의 지정관리자)과 각종이벤트 기획 운영 사업을 하는 (주)파머스 포레스트의 대표이다. 현직 점포 운영 및 각종 이벤트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 전반과 점포시설 경영, 유통, 마케팅 전반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E씨는 중소기업 진단사이며 슈퍼마켓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맞춘 사업구상, 각종 관련 사업주체와의 연계 구축, 점포(시설)의 운영방법, 사업전망에 맞춘 비즈니스플랜 작성에 관련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F씨는 토치기현 모테기정(茂木町)의 농림과장으로 농촌 지역진흥(마을 만들기)사업을 담당해 왔던 경력으로 관련 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의 발굴 및 특산물 개발, 고부가가치화 연구, 도농교류사업 등에 관련된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플래너는 농업경영분야에서부터 식품가공, 상품개발, 점포관리, 농촌 지역 만들기 등 관련 경력 혹은 현직에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차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단, 중소기업 진단사는 경영진단, 가공품의 원가계산, 판매가 설정 등에 관련된 분야에는 능통하지만, 농업관련 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플래너의 선정은 서포트센터와 농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포트센터에서 농가에 필요한 부분에 맞추어 칸토 농정국(각 지방농정국)에 등록된 30명중에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플래너를 활용(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서포트센터에서는 등록된 30명의 플래너에 관해 이름과 전문분야 정도의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플래너를 선정·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실적이 있는 일부의 플래너만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파견된 플래너도 토치기현과 연고가 있는 12명만이 기용되었다. 따라서 향후 플래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포트센터가 등록된 플래너를 대상으로 정보 교류회나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플래너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플래너의 고용과 관련하여 임금수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회당 6시간 기준으로 2만 엔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부터 1시간당 6,400엔(1일 최대 4시간)의 시급제로 전환되었다. 토치기현 서포트센터의 2012년 한 해 동안(9개월간)의 파견건수는 최대가 29회(1인당), 최저가 2회로 평균적으로 1인당 15회 정도였다. 즉, 이 사업을 통해 플래너는 한 달에 약 20만 엔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이 본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입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5.1.3. 토치기현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연망

토치기현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 사업체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20건이다. 사업유형은 관광·체험·도농교류·이업중 연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사례라기보다, 쌀, 우유, 딸기, 배, 메밀, 당근, 대두, 토마토, 블루베리, 타라곤, 화우 등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품 개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편적인 경향이다.

한편, 현재 채택된 인정사업자 중에서 150ha(그중 경작포기지 60ha 포함)규모에 메밀을 경작하여, 메밀건면 및 생면, 메밀소주 등의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는 현재 경영상태 및 사업의 장래성 측면에서 향후 펀드사업을 통해 사업 확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2013년 10월 토치기현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상황

사례	사 업 내 용
①	(유)나스고원아마목장의 자가생산한 원유 및 산양밀크를 이용한 치즈의 제조판매사업
②	농업생산법인에서 생산한 쌀을 가공, 고부가가치화 쌀가루러스크, 쌀가루빵등의 제조, 판매
③	자가생산품인 딸기와 밀가루를 이용한 상품개발판매사업
④	카토농원의 수제 과일잼의 제조판매
⑤	중돈의 육종, 개량을 목표로 한 햄, 소세지, 정육의 제조판매
⑥	지역산 베니아즈마(고구마품종)를 활용한 아이스크림의 가공판매
⑦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판매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사업
⑧	블루베리등을 사용한 아채 스무지 (smoothie) 개발 및 인습 직판사업의 전개
⑨	정육점과 파머스 카페의 신상품 개발
⑩	후카사와 배과수원의 수제 만능양념장의 제조판매
⑪	자가생산한 메밀을 이용한 메밀건면, 수타메밀생면의 제조 가공 및 판매
⑫	지역산 우유 및 당근을 활용한 당근우유, 당근요구르트의 개발생산판매
⑬	지역산 100%의 떡, 고두밥의 상품제조, 판매를 통한 「古里の味水車食房」 의 브랜드화
⑭	자가생산한 대두를 활용해 만든 된장, 두부의 신상품 개발
⑮	수제 토마토 퓨레의 제조판매
⑯	「완숙 닛코리(품종명) 배」 를 사용한 사이다, 사탕등 신상품 개발과 제조판매사업
⑰	자가생산한 안전, 안심의 화우의 유통 판매사업
⑱	블루베리 관광체험농원의 수확체험 판매, 잼제조 판매
⑲	일본배와 인삼을 활용 한 양념장, 드레싱의 가공식품 개발
⑳	직접생산한 타라곤을 활용, 풍부한 향을 고집한 허브타라곤 드레싱의 개발, 생산, 판매사업

자료: 토치기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제공자료(2013년 10월 31일 기준 실적).

사업주체별로는 개별농가가 16건으로 압도적이며, 반면 복수농가로 이루어진 조직 사업체는 4건으로 비교적 적다. 법인 등 조직체가 사업계획을 세울 경우, 구성원 전체가 실제 생산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제 6차산업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의 신청 건수는 전체 30여건이었다. 채택되지 않은 사업 중에는 가공품 및 개발상품이 기존에 제조한 것과 다른 상품이어야 한다는 기준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시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일단 판매해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때는 물량에 관계없이 기존제품으로 취급되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소규모로 만들어 팔던 가공품의 소비자 반향이 좋아서 기계·시설 등을 늘려 사업을 확장 하고자 인정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6차산업화 사업인정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제품등을 포함한 신상품의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4. 토치기연 6차산업화 지원정책 추진 과제

현재,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 주체로 서포트센터 이외에 시단위로 설치된 지역 농업진흥사무소의 보급지도원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토치기연의 경우, 2011년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보급원들의 업무가 방사능 검사 등 재해관련 대응이 중심이 되어 농가의 농산물 가공품 개발, 창업지원 대응이 미비하였으나, 현재 재해관련 대응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앞으로 6차산업화 관련 지원 활동이 기대된다.

농업진흥사무소의 경우, 각 지역별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지도, 지원활동 측면에서 서포트센터보다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의 폭이 넓다.

지도보급원은 종래부터 농가에게 직접 농업 기술 지도와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의 지도 및 경영 상담을 담당해 왔으며, 이를 통해 농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점에서 향후 서포트센터, 플래너와 농가의 중재·조정 역할에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단, 지도보급원은 작물의 재배기술 지도관련 전문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산물 가공, 창업 등 6차산업화와 관련된 지도가 가능한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 6차산업화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지도보급원과 서포트센터가 상호의 지원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지원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 형식의 지도 형태이기 때문에 플래너 간에 상호 정보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한 농가에 복수의 플래너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전의 상담내용과

진척 상황 등을 플래너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도현장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례와 의견,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화 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상황별 최소한의 어드바이스 기준, 노하우 등을 축적시킨 체계화된 매뉴얼 또한 요구되고 있다.

한편, 농협의 6차산업화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가 낮은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토치기현의 경우 계통출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의 입장에서는 직판 등으로 계통출하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거나 위험성 있는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규모 있는 6차산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체로 농협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향후 농협의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6.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정책 과제

국제경제의 블록화로 인한 글로벌리즘이 빠르게 전개되는데 대비하여 앞으로 농업·농촌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즉,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다. 예를 들면, 국내 농업측면에서는 향후 농업·농촌에는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춘 상품 서비스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의 체험, 휴양, 힐링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가치 개발 또한 요구된다. 한편, 해외시장 측면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확대해 가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시장 개척을 위해 농업·농촌의 지역자원을 풀로 활용하는 방법의 형태인 농업·농촌 6차산업화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1. 6차산업화 활동 주체 육성

2012년 일본정책금융공고가 6차산업화 및 대규모 농업경영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수 1,003명, 회수율 48.3%)에 따르면, 전체의 70%가 6차산업화의 계기는 「생산, 가공, 판매의 일원화를 통한 가격 결정권 확보를 위해」라고 응답하였으며, 6차산업화 사업의 전개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영업·판로확대」가 59.9%, 「가공」 35%, 「조직의 운영·관리」 27.7%였다. 즉, 기존의 푸드시스템 상에서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6차산업화 사업을 전개하는 경영자들에게 영업 및 판로 확대, 가공, 조직운영·관리에 대한 능력 배양을 지원해 나아갈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업에서는 1차산업 종사자의 상품개발, 마케팅, 판매 전략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6차산업화 플래너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플래너의 경우 어디까지나 외부 주체로서, 사업체의 지속적 경영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6차산업화 사업체 경영주가 6차산업화에 요구되는 생산, 가공, 판매, 영업, 고객 관리 등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2. 6차산업화 지원 주체 역량 강화

6차산업화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가공의 경우, 식품위생관리의 철저가 요구되며 식품위생관리와 기준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반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보급지도원 및 플래너는 소수에 그치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플래너의 직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단사는 경영컨설턴트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으로 경영상황의 진단, 경영개선에 관한 조언, 경영체의 현재 상태 파악, 및 성장전략의 책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을 횡단 가능한 폭넓은 매칭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농업부분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 점에서 플래너를 대상으로 한 교육, 현장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시사되는 바이다.

또한, 농가의 지원 주체인 보급지도원은 1990년 초기부터 생활개선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농가여성 그룹을 중심으로 장류 가공, 향토음식, 과자, 반찬류 등 농산물의 가공과 관련하여 폭넓은 지도를 담당해 왔다. 이후, 1990년부터는 직매소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마케팅이나 직매소의 경영관리의 지도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보급지도원 관련 제도 개정으로 인해, 보급지도원수의 감소와 함께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도 인력 부족 및 전문 기술력 등이 약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보급지도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 6차산업화 관련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6.3. 서포터의 경쟁력 지원 체계 마련

현재 시행중인 6차산업화 인정사업 및 관련 사업은 6차산업화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플래너, 보급원 등의 서포터를 통해 비즈니스 관련 정보력, 상품개발, 마케팅 부분의 지원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다각화는 가공, 유통, 시장 개척

등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크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장기간이 요구되므로, 서포터 역시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6.4. 6차산업화 활동 코디네이터 육성

현 단계의 6차산업화 사례는 개개의 독립된 사업체의 비즈니스 전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에 상호 연계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보다 규모화된 사업, 예를 들면, 수출과 같이 대규모 시장을 타깃으로 구상한 6차산업화 사업의 경우 공급 및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 산지내외 및 산업 간의 연계를 구축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6차산업화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코디네이터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6.5. 농업 참여 활성화

농협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농산물 공급체계 안의 모든 기능을 갖춘 조직체이다. 더욱이 관련 기관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조직체인 점에서 민간 기업등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6차산업화 사업 추진에서 신용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한 수익배분에서 조합원인 농가가 수익자가 되는 구조는 6차산업화 사업 목표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6차산업화 사업유형의 대부분이 농산물 가공, 유통사업인 점에서 농협의 사업과 중복되고, 또한 독립하여 이탈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서 농협이 6차산업화 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모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확대된 범위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참여 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饒村健. 2013. “「6次化ファンド」への期待.” 「調査と情報」, 農中總研第35号.
- 社団法人食品需給研究センター. 2013. 「6次産業化サポート人材活動対策—成果報告書—」. 社団法人食品需給研究センター.
- 片上敏喜. 2012. “新産業としての農業の6次産業化の成立要件に関する研究—近畿地方を中心に—.” 「農業研究」, 日本農業研究所研究報告第25号.
- 室屋有宏. 2011. “6次産業化の論理と基本課題—農山漁村から市場經濟を組み替える 取り組み—.” 「農林金融」. 農林中金總合研究所.
- 全國農業改良普及支援協會. 2011. 「6次産業化による農業・農村の活性化手引き書—普及の力は人・地域を変える—」. 社団法人全國農業改良普及支援協會.
- 小田切徳實. 2009. 「農山村再生—限界集落問題を越えて」. 岩波ブックレット.
- 今村奈良臣. 1998. “新たな価値を呼ぶ、農業の6次産業化.” 「地域に活力を生む、農業の6次産業化—パワーアップする農業・農村—」. 財団法人21世紀村づくり塾. 全新企畫社.
- 農林水産省 (www.maff.go.jp)